

전주시민 편익 높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최우수 개인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견본세대 측정 제도 도입

최우수 팀 - 시민 중심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 사례 선정 등 총 5건 선발

전주시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총 5건을 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5건의 우수사례는 각 부서에서 추천한 총 17건의 적극행정 사례 중 온라인 시민 투표와 발표심사를 거쳐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심의 결과 최우수 사례로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견본세대 측정 제도 도입(개인 부문) △시민 중심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 사례(팀 부문)가 각각 선정됐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견본세대 측정 제도'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실

시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검사의 개선 사례이다.

현행 제도는 공사 준공 검사 직전에 바닥충격음을 측정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보완시공과 손해배상 등을 권고하는 사후 조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층간 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일부 세대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우선 시공하고, 성능 확보가 확인된 경우에만 모든 세대를 공사하도록 하는 견본세대 측정제도를 도입해 성능 검사의 실효성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시민 중심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 사례는 팔복동 공업지역의 과도한 규제로 환경오염이 적은 일반공장·제조시설 투자 및 생산 활동까지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폐기물

소각시설 제한사항은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과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만성지구의 나대지로 방치된 부지의 지구단위 계획을 완화해 활용도를 높이고, 일부를 주차장 용지로 결정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높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우수사례로는 △지역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한 '전주시-베트남 경제교류 추진' △적극적인 주민 소통과 설득을 통해 이끌어 낸 '소규모 행정동(금암1·2동) 통합'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고, R&D 지원사업을 통해 첨단바이오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 '바이오기업 유치 및 바이오산업 기본구상 수립'이 장려 사례

로 선정됐다.

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발된 공무원과 팀에는 표창 및 포상, 국외 연수선발 가점,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하여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에는 △전주 합계라면 △대한민국 기회발전특구 지정 △마을버스 확대 도입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 개방 △전주 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 총 5건이 선정된 바 있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시설공단은 30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6,057만원을 전달했다.

전주시시설공단, 노사 한뜻 성금 기부

총 390명 재직자 6057만원 모아... 어려운 이웃에 온정 전달

전주시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 노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뜻으로 온정을 모았다.

공단은 30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6057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 전달식은 이날 전주시장실에서 공단 노사와 모금회 양 기관 임원들, 우범기 시장 등 전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단 노사는 재직자 총 39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경영평가 평가급의 일부를 성금으로 모금해 기부했다.

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4년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나' 등급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그 성과의 일부를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한 것이다.

성금은 전주시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소중히 쓰일 예정

이다.

이연상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어려운 여건에 처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철 공단 노조 위원장은 "공단 발전의 양 축인 노사가 함께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돼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결혼가정 어린이 '소원 들어주기' 프로젝트 △급여 끝잔배기 등 기부금 모금 △중증장애인을 위한 나눔이 행사 등 사회적 가치 프로그램으로 시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북지역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머리맞대'

전북환경운동연합·한국과총전북지역연합회, 정책 포럼 개최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한국과총전북지역연합회가 '전북지역 에너지전환과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확대'를 주제로 30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 포럼은 지역의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공공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의무화 중심으로는 한 공공영역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참여형 에너지협

동조합, 에너지저장장치 등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주제를 형성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는 장진호 전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전북지역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 조사 분석', 사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이 '전북 재생에너지 현황과 탄소중립 목표달성 과제',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분산에너지시대 전북지역 지산지소 대응과제'를 맡았다.

전북지역의 재생에너지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과 출력 제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지정토론은 박은재 전주시민햇빛조합 사무국장이 '계통중단 시기의 전북 햇빛네트워크 방향 모색', 김영경 경기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이 '경기도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사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해소', 김운권 전북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

처장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 공동체의 신뢰 구축이 우선이다' 좌장을 맡은 유남희 전북대 교수는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호남·제주 권역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놓치면 안 된다"라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서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청년봉사단체 그린나래, 한해 마무리 행사 개최... '수고했어 올해도'



청년봉사단체 그린나래는 2024년을 마무리하며 지난 26일 '수고했어 올해도'라는 행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연말 크리스마스 파티 컨셉·체험부스 등 펼쳐 눈길

청년봉사단체 그린나래는 2024년을 마무리하며 지난 26일 '수고했어 올해도'라는 행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전북대학교 근처에 위치한 카페 위아티스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그린나래 청년들의 재능기부 활동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행사를 방문한 방문객들은 타로, 캐리커처, 퍼스널컬러 등 다양한 부스를 방문해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카페에 준비된 보드게임들과 그린나래에서 마련한 게임을

통해 교류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민경현 회장은 "본래 작은 봉사단체로 시작했지만, 이 지역의 청년들이 더욱 즐기고 함께 모일만한 행사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축제 문화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싶었다"며 "앞으로 더 규모있는 청년문화 행사를 열기 위해 비영리단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는 더 꼼꼼히 준비해 전북 지역 청년들을 위한 행사를 더 많이 준비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옥기 기자

전북불교대학, '엄마의 밥상'에 성금 기탁

전주시에 대상 아동을 위한 200만원 후원

(사)부처님세상(이사장 백준기) 부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은 지난 29일 '송년법회'를 기념해 전주시에 2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주시 엄마의 밥상 대상 아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백준기 (사)부처님세상 이사장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희망과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매년 소중한 나눔의 온정을 베풀어주시는 전북불교대학에 감사드립니다"며 "기부해주신 성금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8년 개교한 전북불교대학은 호남 최초의 불교대학으로, 시민강연회와 인문학특강 등 질 높은 강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36년간 전북지역 불교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

장수군의의회

의장
최한주 의원

부의장
유경자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김광훈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김남수 의원

한국회 의원

장정복 의원

이종섭 의원

장수군의의회
JANGSU COUNTY COUNCIL